

하늘의 뜻

정

관수술 후 임신이 되더라도 피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정관수술을 하였는데도 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구피임을 할 목적으로 정관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 임신이 되는 바람에 당사자 부부들이 놀랐던 것 같다. 그동안 아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 정관복원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부인이 더 이상 아이 키우는 일에 진저리 치는 상태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인 남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든다. 아마도 이번 재판은 후자의 경우인 것 같다.

의학은 만능이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역시 만능이 아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환자가 잘되고 못되고는 어쩌면 신의 뜻일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의사에게 만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요즘 들어 환자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 확률의 의미가 크다.

감기 한 가지를 보더라도 누구나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동안 많은 의사들이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많은 문명의 이기가 나오고 현대의학이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치의 병이 많은 실정이다. 현대의학은 만능이 아니며 원인조차 모르며 규명되지 못한 질병이 많은 실정이다.

인체란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정교한 우주선의 기술로도 풀지 못하는 신이 만든 작품이다. 인간의 유전자조차 지금에서야 간신히 한 개만을 알아냈을 뿐이다.

신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라 하겠다.

정자와 난자가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과 서로 만나 임신이 되는 과정 또한 신비하기 짝이없다. 정자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두 달반이란 기간을 거치면서 숙성이 된다. 숙성되고 나오는 동안 부고환이나 주변 세력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세상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여성은 필요한 난자가 한 달에 한번씩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나 남성의 고환은 끊임없이 정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자를 만드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한 번 사정할 때 5억 마리의 정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정자들 중에 정작 임신에 간택이 되는 것은 한 마리밖에 없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구애를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 순간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사람을 나누면서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 결혼을 위해서 수많은 남녀들의 만남이 있듯이 5억 마리의 정자들은 서로 선택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치열하다. 종족의 번식에 대하여 자연의 선택은 까다롭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기다려도 임신의 기미가 안보여 애를 태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관계만 있었다고 하면 임신이 된다.

심지어는 정관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결되어 임신하기도 한다.

정관수술은 정자가 나가는 길을 차단시켜 주는 영구피임수술 방법이다. 비교적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수술로써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술 받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년이 넘도록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왔다. 문제는 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바람에 의사를 망신시키기도 한다.

혹은 10년이 넘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관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자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삶은 어쩌면 종족번식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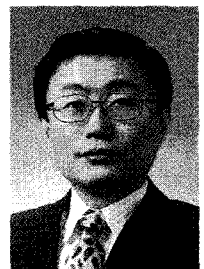
조물주는 종족번식에 대한 배려로써 조직의 손상을 당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따라서 불임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관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상대를 찾아 연결이 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해 낳느냐는 조물주가 결정하며 환자 본인의 운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의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인간은 신의 의지에 따를 뿐이다.

얼마전 아이하나를 더 갖고자 정관복원수술을 시행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왜 아직도 임신이 안되느냐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정관수술을 하기 전에는 관계만 가졌다하면 임신이 되어 당혹스러운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원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되었다면서 왜 소식이 없느냐는 것이다. 임신이란 한 달에 한번 밖에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기본 상식마저도 잊어버린 듯 하였다.

거의 일년 가까이 지나서야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임신 또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